

광주동부교육청, '2023 교원 치유 캠프' 성황리에 마무리

'나와 타인을 찾는 심리여행' 주제로 교원 38명 대상 진행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돕고 교원의 내적 성장 위해 마련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6일 어반브룩에서 '나와 타인을 찾는 심리여행'이라는 주제로 교원 38명을 대상으로 '2023 교원 치유 캠프 1기'를 성료했다.

지난 29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교원 치유 캠프는 새학년을 준비하는 교원들에게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원의 내적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성격 유형검사 도구 중 하나인 MBTI를 활용해 교원 스스로 자신과 타인의 심리

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강사로는 드림놀이터꿈틀(주) 안은영 대표를 초빙했다. 안 대표는 MBTI를 활용해 교원 스스로 자신을 먼저 탐색한 후 객관화 과정을 거쳐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다뤘다. 각종 교육활동 주 발생

하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다양한 교육활동 집

행위로 인해 교원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원의 안정된 심리 기반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에 참여한 한 교원은 "MBTI 유형별 특성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됐다"며 "자녀나 학생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동부교육지원청 정낙주 교육장은 "이번 캠프가 급변하는 교육 현장과 교직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의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곡성교육청,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프로그램 운영



곡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예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 프로그램과 더불어 관내 전환기 학생들 대상으로 상급학교 생활 설계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곡성교육지원청 2023 맞춤형 진로진학지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학생들에

예비 고등학생 대상, 진로 및 학업에 대한 정보 제공

게 진로 및 학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자 마련되었다. 대입전형의 이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생활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디자인 강의와 학생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중 희망자는 1학기 기말고사 이후 꿈길산책 프로그램의 개별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은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고등학교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으며,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내가 진학할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도움을 얻었다"는 참석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함께 컨설팅에 참여한 학부모님께서도 "찾아이를 고등학교에 보내고 무엇을 어떻게 지도할지 걱정되고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내용을 질문하고 답을 얻어 아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이 결정된 거 같아 좋았다고 밝혔다.

김선수 교육장은 슬기로운 학교 생활 프로그램 통해 "학생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진로 및 학교 생활을 설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런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간 학생들에게 투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광양중마유치원, '찾아오는 미술체험활동'



광양중마유치원은 지난 11일, 학교자율사업 선택제 운영의 일환으로 '찾아오는 미술체험활동'을 실시했다.

광양=김현근기자

광양중마유치원은 '찾아오는 미술체험활동'을 통해 교육적 경험의 다양화를 제공하고 유아들에게 상상력 및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겨울방학 중임에도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유치원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에어바운스 활동",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호떡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유아들에게 배움을 최대한 지원하고 유아들의 놀이에 귀 기울이고자 하였다.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

전라남도교육청이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한 단위학교의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2023년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은 일반계 고교 교원 중 희망자 68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연말까지 △ 교육과정 지원팀 △ 진로학업설계 지원팀 △ 수업 및 평가 지원팀 △ 학교문화 조성 지원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지원단은 이 기간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설명회, 워크숍, 연수, 컨설팅 등 각종 행사의 강사 및 컨설턴트로 활동한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자료 개발·보급 등을 통해 단위



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다지는 현장 중심 지원 활동을 펼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 27일 1박 2일 간 드림드호텔(담양)에서 2023년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워크숍을 운영했다.

최이슬기자

영광공공도서관, '김영수 교수의 리더의 용인 기술과 지혜' 운영

영광공공도서관은 새해를 맞아 지역민을 대상으로 오는 31일 영광 지역 인문학자 김영수 교수를 초청하여 인문학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리더의 용인(用人) 기술과 지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대변환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리더에게 필수적인 자질인 사람을 잘 사용하는 인재 경영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강연자와 참가자가 소통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자 김영수 교수는 동양 고전학자로서 최근 오천년 중국 역사 속 제왕들과 자신의 주군을 최고의 자리에 올린 인재들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 '제왕의 사람들'을 펴냈다. 이 책은 사람을 얻고 쓰고 키우고 남기는 법에 관한 인재 발탁과 활용에 대한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역사 인문학 특강을 통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누구라도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를 시작으로 올해 우리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문학 특강 참여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yglib.jne.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서점 한길서림 방문을 통해 지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